■ 민족문화연구 제79호(2018.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99-320.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

하영우**, 신우봉***

목 차

1. 서론
2. 연구 자료
3. 진도 지역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명의 진도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단모음 음성 자료를 구축하여 성별,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음성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전남 서남부에 위치한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는 /ㅣ, ㅔ, ㅡ, ㅓ, ㅏ, ㅜ, ㅗ/의 7모음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전남 방언은 대개 /ㅚ/, /ㅟ/를 단모음으로 보았으나, 진도 지역 장년층은 두 모음을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조음하였다. 또한, 청년층은 모두 두 모음을 완벽하게 이중모음으로 실현하였다. 한편,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조음 위치를 분석한 결과 세대

* 이 논문은 겨레어문학회 2017년 하반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 대회에서 토론을 통해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장혜진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실험에 참가해 주신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주민 여러분과 진도고등학교 학생들, 진도고등학교 김만용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대우교수(제1저자).
***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진도 지역 장년층 화자와 달리 청년층 화자는 /ㅡ/의 전방화, /ㅜ/의 전방화, /ㅗ/의 고모음화, /ㅓ/의 후설 저모음화로 이어지는 후설 고·중모음의 연쇄적인 조음 위치 변화가 나타났다. 청년층의 단모음 음가 변화는 진도 지역은 물론 여타의 방언권에서도 나타나는 표준어 수렴 현상의 하나이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진도 지역 화자는 세대에 따른 단모음 체계에 차이는 없지만 개별 단모음의 음성 실현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음성 자료의 직접적 분석을 바탕으로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를 구명한 점과 세대에 따른 조음 위치적 변화를 포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전남 방언(진도 지역어), 단모음 체계, 세대, 후설 고·중모음, 조음 위치 변화.

1. 서론

이 연구는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진도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음성 자료를 구축한 후 성별과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음성 실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남 방언의 단모음은 일반적으로 9모음 체계로 본다. 전남 방언의 9모음 체계는 다른 방언권과 비교하여 전설 모음이 특징적이다. /ㅖ/와 /ㅐ/를 변별적 음운으로 보는 표준발음법의 단모음 체계와 달리 전남 방언은 일찍이 두 모음이 /E/로 중화되었다. 또한 경상 방언과 달리 /ㅟ/, /ㅚ/가 전설 원순 모음으로 존재한다.[1] 물론 단모음 체계는 전남 하위 방언권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와 인접해 있는 구례군 토지면과 광양시 진월면은 '개 ; 게, 떼(群) ; 때(垢), 세:(强) ; 새:(漏)'처럼 /ㅖ/와 /ㅐ/가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2]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남 지역은 9모음 체계로 본다.[3]

---

1) 이돈주, 『전남방언』, 서울: 형설출판사, 1978.

2) 같은 책, 70면; 이기갑, 「동부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제7호, 한국언어학회, 1984, 116-117면 참조.

3) 이돈주, 앞의 글[전남 일반]; 기세관,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전남 서부, 전남 동남부]; 박양구, 「전남 방언의 모음체계」, 『논문집』 제7집, 漢城大, 1983[전남 일반]; 이기갑, 앞의 글[전남 일반]; 남정식, 「全南 內陸 方言의 音韻考: 東部地域과 海岸地域을 比較하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1990[전남 서부]; 정채삼, 「全南 康津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북대 석사학위논

전남 방언의 음운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전남 방언의 9모음 체계는 공고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언어학적 체계의 견고함과는 별개로 단모음의 실현 양상에 대한 검토는 늘 필요하다. 언어 이론 체계의 일반성이 언어적 실체와 늘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표준발음법은 10모음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표준어 화자의 단모음 체계는 /ㅖ/, /ㅒ/의 변별 상실과 /ㅚ/와 /ㅟ/의 이중모음화에 따라 7모음 체계로 굳어진 지 오래다.[4] 단모음의 변화 양상은 여타의 지역에서도 관찰된다. 대구 지역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 단모음의 조음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5] 또한 제주 지역은 세대, 성별, 지역에 따라 조음 가능한 단모음의 수와 음운·음성적 실현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6]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 역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ㅚ/, /ㅟ/이다. 전남 진도 지역의 음운 현상에 대해 논의한 이진숙은 이 지역의 단모음 체계가 9모음에서 /ㅚ/, /ㅟ/가 빠진 7모음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7] 이어 후속 연구에서는 고흥 지역과 달리 진도 지역은 20세기에는 9모음 체계였으나, 21세기에 들어 7모음 체계로 변화한

문, 1995[강진]; 조창규, 「'위'와'외'의 발달과 음가에 대하여 : 18·9세기 전남 서부 방언을 중심으로」, 『國語國文學硏究』 제19집, 圓光大 人文科學大學 國語國文學科 1997[전남 일반];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태학사, 1998[고흥]; 손희하·위평량, 「구림 지역어의 변화: 노년층과 장년층의 음운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8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1[영암]; 김광헌, 「신안 지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3[신안]; 최형기, 「전남 나주 방언의 몇 특성」, 『언어연구』 제19권 3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04[나주]; 이상신,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영암]; 김경표, 「해남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해남]; 이진숙, 「진도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진도]; 김경표,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신안, 진도, 완도]; 이진숙, 「담양 지역어의 특징적인 음운현상」, 『국어학』 제69집, 국어학회, 2014[담양].

4) 신지영·차재은,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서울: 한국문화사, 2003; 이진호, 『국어 음운론 강의』, 서울: 삼경문화사, 2005; 차재은, 「20세기 초의 한국어 모음 체계」, 『한국어학』 제37권, 한국어학회, 2007, 361-396면;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1집 2호, 한국음운론학회, 2015, 341-358; 하영우·오재혁, 「아나운서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3집 1호, 한국음운론학회, 2017, 55-94면.

5) 장혜진,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6) 신우봉,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7) 이진숙, 앞의 글, 2010.

것으로 보았다.[8] 완도 지역의 음운 현상에 대해 논의한 김철 역시 /ㅚ/와 /ㅟ/를 단모음으로 설정하지 않았다.[9]

전설 원순 모음의 불안정성은 영암 지역의 음운론 연구에서도 언급되어 있다.[10] 영암 구림 마을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에 대해 논의한 손희하·위평량은 60대 이상의 화자들이 전설 원순 모음을 명확하게 조음하는 데 비해 30대는 두 모음의 /ㅚ/ → /ㅖ/, /ㅟ/ → /ㅣ/ 변이가 두드러지며, 의식적으로 발음할 경우 이중모음 [we], [wi]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이는 영암 지역의 단모음 체계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ㅚ/ → /ㅖ/, /ㅟ/ → /ㅣ/의 변이가 30대 화자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단모음 /ㅚ/, /ㅟ/의 단순 변이가 아닌 이중모음 [we], [wi]의 /w/ 탈락 현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9모음으로 대표되었던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현재 변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모음 체계의 변화를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은 음성 자료의 직접적 분석이 아닌 연구자의 직관에 의지한 결과라는 점에서 단모음 변화 양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명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음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남 서남 방언권에 속하는 진도 지역을 대상으로 단모음의 실현 양상과 세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성별에 따른 사회언어학적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대체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논증되었던 전남 방언의 단모음 연구를 음성학적 차원에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8) 같은 글;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9) 김철, 「전남 완도군 신지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9.
10) 이상신, 앞의 글, 18면; 손희하·위평량, 앞의 글, 100-101면.

2. 연구 자료

전남 방언은 지리적 조건과 전북, 경남과의 접경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위 방언권이 설정된다.[11] (1)은 이돈주에서 제시한 전남 방언의 하위 구분이다.[12]

(1) A 지역 : 광산, 담양,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무안, 신안
B 지역 :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흑산도
C 지역 : 구례, 광양, 여천, 승주, 고흥(거문도)

(1)의 세 지역 중 이 연구에서는 B 지역의 진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A, C 지역은 각각 전북, 경남과 접경 지역인 데 비해 B 지역은 여타의 방언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서남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진도는 B 지역 중에서도 전북, 경남 접경 지역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진도는 30여 년 전까지 육로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남 방언의 전형적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진도 지역은 1984년 해남 문내면으로 이어지는 진도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육로가 없었으며, 다리가 놓이면서 육지와의 교통이 원활해졌다.

피험자는 현재 전남 진도에 거주 중인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청년층인 10대 후반과 장년층(長年層)인 50대 후반-70대 초반의 남녀 각 5명씩을 선정하였다. 장년층은 진도군에서 출생하여 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 온 임회면 용호리 거주민이었다. 장년층 중에는 군대와 직업상의 이유로 1-4년 정도 외지에서 생활한 사람도 있었다. 장년층의 연령은 57-71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61.4세였다. 청년층은 진도군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19세 학생들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8.8세였다.[13] 청년층 역시 진도에서 출생한 후 지역 이동 없이 계속 진도에 거주

11) 이돈주, 앞의 책, 37면, 189-190면 참조.
12) 이기갑은 전남 방언을 동부(구례 광양, 고흥, 여천, 승주, 완도, 평일도)와 서부의 핵방언권으로 구획한 후 서부를 다시 북부(광산, 담양,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무안)와 남부(진도, 신안, 조도, 장흥, 당진, 해남, 영암, 완도)로 구분하였다. 한편 A 지역 중 '광산'은 현재 광주시에 편입되어 있다. 이기갑, 앞의 글; 이돈주, 앞의 책, 189-190면 참조.

하였다. 실험 당시 피험자들은 조음과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실험 과정을 모두 잘 이해하였으며, 실험 중 이상을 보인 사람도 없었다.

전남 진도 지역의 단모음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피험자를 대상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실험 자료는 2-3음절로 구성된 유의미 단어였으며, 실험 방식은 '단어 읽기'였다. 실험 단어는 10모음을 기준으로 각 모음당 3개씩 구성하였다. 실험 단어는 선행 자음으로부터의 동시 조음 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첫 음절을 'V' 형식으로만 구성하였다. 그러나 /ㅡ/처럼 첫 음절이 'V'이면서 저빈도 단어가 아닌 것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은행'처럼 초성이 'VC'인 구조도 포함하였다. 모음의 유형에 따른 실험 단어는 〈표1〉과 같다.

■ 〈표1〉 실험 단어 목록

전후	평순 · 원순	고저	단모음	단어 1	단어 2	단어 3
전설	평순	고모음	ㅣ	이녁	이마	이불
		중모음	ㅔ	에미	에비	에누리
		저모음	ㅐ	애기	애리다	애호박
	원순	고모음	ㅟ	위인	위반	위로
		중모음	ㅚ	외인	외부	외래
후설	평순	고모음	ㅡ	으름장	으름	은행
		중모음	ㅓ	어른	어미	어매
		저모음	ㅏ	아구	아배	아들
	원순	고모음	ㅜ	우연	우산	우비
		중모음	ㅗ	오강	오바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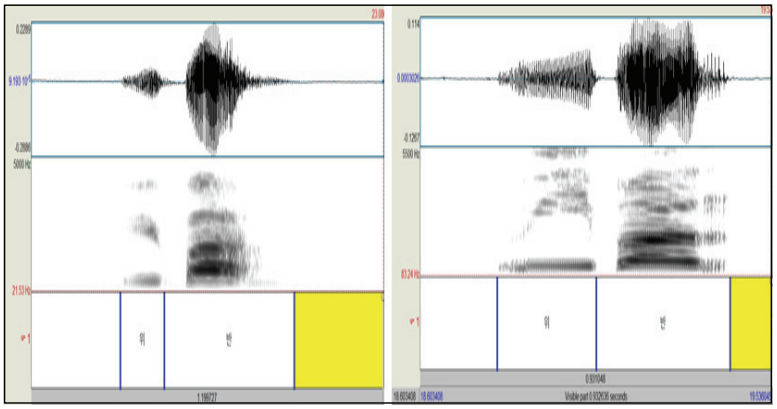
'단어 읽기' 실험은 스크립트에 제시된 단어를 피험자가 보고 읽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어 읽기'의 실험 단어는 30개였으며, 피험자들은 해당 실험 단어를 2회 반복하여 읽었다. 단어 읽기 실험을 통해 얻은 분석 자료는 총 1,200개였다.(단어 30개 x 2회 낭독 x 피험자 20명=1,200개)

녹음은 조용한 실내와 소음이 적은 차량 안에서 진행되었다. 녹음에 이용

13) 청년층을 20대가 아닌 10대 후반으로 설정한 것은 진도 지역의 지역 이동 특성 때문이다. 진도 지역의 고교생은 졸업 후 대부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인근 도시나 서울/경기 지역 등 외지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지역 이동 없이 진도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20대의 수는 매우 적다. 또한 진도에 거주 중인 20대는 대부분 외지 생활을 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층 피험자는 10대 후반인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된 기기는 TASCAM DR-100 MKⅡ와 이 기기에 내장된 마이크였다. 음성 자료는 표본추출률 44,100Hz, 양자화는 16bit로 디지털화하였다. 스테레오 타입으로 녹음된 자료는 Praat를 이용하여 모노 타입으로 변환하였다.

실험 단어의 분석은 /ㅚ, ㅟ/와 /ㅣ, ㅖ, ㅒ, ㅡ, ㅓ, ㅏ, ㅜ, ㅗ/를 대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ㅚ, ㅟ/는 단모음으로 실현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ㅚ, ㅟ/ 포함 단어 6개 x 2회 낭독 x 피험자 20명 = 240개) /ㅚ/, /ㅟ/의 조음 양상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 그리고 '/w/ 탈락형'으로 나누어 판정했다. /w/ 탈락형은 활음 /w/ 탈락으로 인해 /we/, /wi/가 /ㅖ/와 /ㅣ/로 조음되는 유형이다. 이는 전남 방언에서 이중모음을 조음할 때 활음 탈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설정하였다.[14]



〈그림1〉 단모음 /ㅟ/(좌)와 이중모음 /ㅟ/(우)의 스펙트로그램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구분은 이중모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포먼트 전이 구간의 생성 여부와 피험자의 입술 모양의 변화 여부를 관찰하여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단모음 /ㅟ/는 〈그림1〉(좌)처럼 활음 부분의 포먼트 전이 구간이 없다. 반면 조음 과정이 두 번 일어나는 이중모음 /ㅟ/는 〈그림1〉

14) 전남 방언은 이중모음 체계에서 표준어나 기타 방언권과는 다른 구조적 제약과 특징이 존재한다. 전남 방언의 이중모음 제약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우)처럼 스펙트로그램상에서 활음 부분의 포먼트 전이구간이 관찰된다.

한편 단모음 자료의 음성적 실현 양상은, 모음 공간(vowel space)에서 혀의 높이와 관련된 제1포먼트(이하 F1)와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제2포먼트(이하 F2)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단모음 대상 단어 24개 x 2회 낭독 x 피험자 20명 = 960개)[15] 포먼트 값은 Praat를 기반으로 단모음의 안정 구간을 레이블링한 후 중앙 지점을 자동 측정하였다. 포먼트 트래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연구자가 직접 재측정하였다. 산출된 값 중 이상치는 Tukey의 정의에 따라 사분범위(IQR)의 ±1.5 배를 벗어나는 값으로 두고 R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16] 이상치 처리를 통해 얻은 '/ㅣ, ㅖ, ㅐ, ㅡ, ㅓ, ㅏ, ㅜ, ㅗ/'의 최종 토큰은 총 891개였다.(모음별 이산값 수치 = /ㅏ/: 8, /ㅖ/: 14, /ㅣ/: 14, /ㅗ/: 8, /ㅐ/: 11, /ㅜ/: 5, /ㅓ/: 5, /ㅡ/: 4)

3. 진도 지역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1) 단모음 체계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ㅖ/와 /ㅐ/가 비변별적이고, /ㅚ/, /ㅟ/가 전설 원순 모음으로 존재하는 9모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ㅚ/, /ㅟ/가 단모음 체계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진숙에 따르면 전남 동부에 속하는 고흥은 노년층만 /ㅚ/, /ㅟ/를 단모음으로 실현하며, 전남 서남부에 속하는 진도는 모든 연령층이 /ㅚ/, /ㅟ/를 이중모음으로 실현한다고 보고하였다.[17] 이는 /ㅚ/, /ㅟ/가 지역에 따라 '단모음 〉 이중모음'의 변화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른 차이도 존재함을 보여 준다. 이에 전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ㅚ/, /ㅟ/의 실체를 밝히고자 진도 지역에 거주 중인 60대 전후의 장년층과 10대 후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ㅚ/, /ㅟ/의 조음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

15) 신우봉, 앞의 글, 152-153면 참조.
16) Tukey, J.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ss: Addison-Wesly, 1977.
17) 이진숙, 앞의 글, 2012 참조.

■ 〈표2〉 /ㅚ/, /ㅟ/의 조음 양상(단위: 개수)

모음	세대	성별	조음 유형				합계
			단모음	이중모음	/w/ 탈락형	제외	
/ㅚ/	장년	남	3	20	7	0	30
		여	1	27	0	2	30
	청년	남	0	30	0	0	30
		여	0	30	0	0	30
/ㅟ/	장년	남	2	9	19	0	30
		여	2	13	12	3	30
	청년	남	0	30	0	0	30
		여	0	30	0	0	30
합계(%)			8 (3.3%)	189 (78.8%)	38 (15.8%)	5 (2.1%)	240

〈표2〉는 진도 지역 화자의 세대별 /ㅚ/, /ㅟ/의 조음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18] 장년층이 /ㅚ/, /ㅟ/를 단모음으로 조음한 빈도는 각각 4회(13.3%)뿐이었다. 단모음으로 조음된 /ㅚ/는 '외래'(1회), '외부'(1회), '외인'(2회)이었으며, /ㅟ/는 '위반'(4회)만 단모음으로 발음하였다. /ㅚ/, /ㅟ/를 단모음으로 조음한 장년층 피험자는 남녀 각각 2명씩 총 4명이었고, 실험 단어를 읽을 때 동일 단어를 모두 단모음으로 조음한 피험자는 없었다.

장년층의 /ㅚ/, /ㅟ/ 조음 유형은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의 활음 탈락형인 /w/ 탈락형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 장년층 /ㅚ/의 조음 유형 중 이중모음 빈도는 47회, /w/ 탈락형 빈도는 7회였다. /ㅟ/는 이중모음이 22회, /w/ 탈락형이 31회로 나타나 /ㅚ/에 비해 활음 탈락형이 많았다. /w/ 탈락형은 본래 이중모음이므로 두 유형을 합쳐서 살펴보면, /ㅚ/, /ㅟ/가 이중모음으로 조음되는 비율은 각각 90%(54회), 88.3%(53회)이다. 이는 /ㅚ/, /ㅟ/가 단모음으로 조음되는 횟수보다 이중모음으로 조음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 준다.

일부 장년층 피험자들이 /ㅚ/, /ㅟ/를 단모음으로 조음했다는 것은 60대

18) 조음 유형 중 '제외'는 단어를 잘못 읽거나 소음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 유형이다.

에게 두 모음이 부분적으로나마 단모음으로 존재함을 말해 준다. 일반적인 모음의 변화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두 모음은 일부 어휘에 단모음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거나 60대 이상의 화자들에게 더 강하게 단모음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년층이 /ㅚ/, /ㅟ/를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 혹은 이중모음에서 활음이 탈락한 /ㅣ/나 /ㅖ/로 조음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모음은 '단모음 〉 이중모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변화의 진전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청년층은 장년층과 달리 /ㅚ/, /ㅟ/를 모두 이중모음으로만 조음하였다. 청년층의 /ㅚ/ 조음 유형은 남녀 모두 이중모음이 각각 30개(100%)였고, /ㅟ/ 역시 이중모음이 남녀 각각 30개(100%)였다. 이는 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에게는 /ㅚ/, /ㅟ/가 완전히 이중모음으로만 존재함을 보여 준다. 즉, 장년층은 /ㅚ/, /ㅟ/의 '단모음 〉 이중모음' 변화가 매우 많이 진전되어 있는 데 비해, 청년층은 두 모음이 이중모음으로만 존재한다.[19]

청년층과 장년층의 /ㅚ/, /ㅟ/ 조음 양상 차이는 두 모음이 단모음 체계 내에 존재하는 방식이 세대에 따라 부분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장년층의 /ㅚ/, /ㅟ/ 조음이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청년층은 더 나아가 완전히 이중모음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진도 지역에서 두 모음은 '단모음 〉 이중모음'으로의 체계 변화가 완료 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년층 일부에 /ㅚ/, /ㅟ/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지만 전남 진도 지역의 /ㅚ/, /ㅟ/는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ㅖ/, /ㅐ/의 비변별성은 전남 방언의 단모음과 관련된 통설 중 하나이다. /ㅖ/, /ㅐ/가 실제로 변별적으로 조음되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대와 성별에 따른 포먼트 값을 측정해 보았다.

---

19) 청년층은 /ㅚ/, /ㅟ/를 이중모음으로 조음할 뿐만 아니라 /wi/, /we/에서 /w/가 탈락한 /ㅣ/나 /ㅖ/의 조음 유형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ㅚ/, /ㅟ/의 조음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세대 간 차이이다. 그러나 /w/ 탈락형의 세대 간 조음 차이는 단모음 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ㅚ/, /ㅟ/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중모음의 조음적 특성이나 이중모음 제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후고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 〈표3〉 세대와 성별에 따른 /ㅖ/와 /ㅐ/의 포먼트 평균값

세대	성별	포먼트	/ㅖ/(Hz)	/ㅐ/(Hz)
장년	남	F1	447	422
		F2	1970	1982
	여	F1	501	489
		F2	2401	2427
청년	남	F1	499	482
		F2	2032	2041
	여	F1	555	527
		F2	2298	2311

〈표3〉은 세대와 성별에 따른 /ㅖ/와 /ㅐ/의 포먼트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ㅖ/, /ㅐ/의 포먼트 평균값 차이는 세대와 성별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지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었다. /ㅖ/, /ㅐ/의 포먼트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대, 성별, 모음을 독립변수로 하고, F1,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F1은 세대($F_{(1,\ 207)}$=68.024, p<.001), 성별($F_{(1,\ 207)}$=83.041, p<.001), 모음($F_{(1,\ 207)}$=11.244,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변수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ㅖ/, /ㅐ/의 F1은 장년층 남성, 장년층 여성, 청년층 남성, 청년층 여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2는 성별($F_{(1,\ 207)}$=375.903,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세대와 성별($F_{(1,\ 207)}$=21.975, p<.001)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ㅖ/, /ㅐ/의 F2 역시 장년층 남성, 장년층 여성, 청년층 남성, 청년층 여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존의 통설대로 전남 방언 화자는 /ㅖ/, /ㅐ/를 변별적으로 산출하지 못함을 말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진도 지역어 화자의 단모음 실현 양상은 /ㅚ/, /ㅟ/를 이중모음으로, /ㅖ/와 /ㅐ/는 통합형 모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ㅚ/, /ㅟ/는 모든 세대에서 이중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

으며, 일부 장년층에게서 나타나는 단모음 /ㅚ/, /ㅟ/는 9모음 체계의 흔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통설대로 전남 방언 화자는 /ㅖ, ㅒ/를 변별적으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모음을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진도 지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잠정적으로 설정해 보면 /ㅣ/, /E/, /ㅡ/, /ㅓ/, /ㅏ/, /ㅜ/, /ㅗ/의 7모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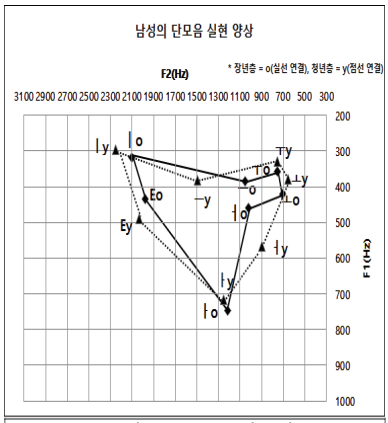
2) 단모음의 음성적 변이

전남 서남부에 속하는 진도 지역의 단모음은 잠정적으로 /ㅣ/, /E/, /ㅡ/, /ㅓ/, /ㅏ/, /ㅜ/, /ㅗ/의 7모음 체계이다. 7모음 체계는 후설 모음이 평순모음 /ㅡ/, /ㅓ/, /ㅏ/와 원순모음 /ㅜ/, /ㅗ/로 구성된 데 비해 전설 모음은 평순모음 /ㅣ/, /E/로만 단출하게 구조화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7모음 체계는 표준어로 대변되는 수도권 중심의 7모음 체계와 완전히 동일하다.[20] 그러나 단모음의 체계적 동일성이 음가적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경남, 전남, 제주 지역의 후설 고·중모음의 실현 양상을 다룬 이향원 외에서는 후설 모음의 음가 변화 양상이 지역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21] 이에 이 절에서는 진도 지역의 단모음의 음성적 변이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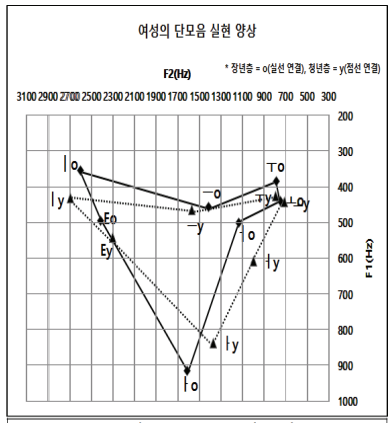
---

20) 신지영·차재은, 앞의 글; 이진호, 앞의 글;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하영우·오재혁, 앞의 글 참조.

21) 이향원·신우봉·신지영,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9권 2호, 한국음성학회, 2017, 39-51면 참조.



세대	성별	포먼트	ㅣ	ㅔ	ㅡ	ㅓ	ㅏ	ㅜ	ㅗ
장년층	남	F1(Hz)	319	434	385	460	747	358	421
		F2(Hz)	2104	1976	1051	1021	1215	755	707
청년층	남	F1(Hz)	296	490	382	568	716	329	379
		F2(Hz)	2254	2036	1492	895	1251	752	656



세대	성별	포먼트	ㅣ	ㅔ	ㅡ	ㅓ	ㅏ	ㅜ	ㅗ
장년층	여	F1(Hz)	356	496	457	501	915	386	440
		F2(Hz)	2596	2413	1413	1131	1608	785	747
청년층	여	F1(Hz)	432	541	464	607	837	425	442
		F2(Hz)	2695	2305	1570	998	1376	797	718

〈그림2〉 세대와 성별에 따른 단모음 실현 양상

〈그림2〉는 진도 지역어 화자의 세대와 성별에 따른 단모음별 F1, F2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단모음의 실현 양상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세대를 중심으로 한 후설 모음의 실현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의 /ㅜ/, /ㅗ/는 장년층과 달리 고저와 관련된 F1보다는 전후 위치와 유관한 F2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장년층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의 /ㅡ/는 F2의 증가로 전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ㅓ/는 F1의 증가와 F2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후설 저모음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장년층의 /ㅓ/는 상대적으로 /ㅡ/에 가깝게 나타난 탓에 후설 고·중모음이 뭉쳐져 있는 형상을 보이며, 이와 같은 양상은 장년층 여성보다는 장년층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세대에 따른 /ㅗ/, /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설 원순 모음인 /ㅗ/, /ㅜ/는 단모음 체계상 대개 고저 위치에 의해 변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림2〉에 제시된 /ㅗ/, /ㅜ/의 F1, F2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은 장년층과 달리 모음의 전후 위치와 유관한

F2가 F1에 비해 더 큰 편차를 보인다. 이에 /ㅗ/, /ㅜ/의 실현 양상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대, 성별, 모음을 독립변수로 하고, F1,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F1은 성별($F_{(1,\ 219)}$=90.903, p<.001), 모음($F_{(1,\ 219)}$=68.966,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대와 성별($F_{(1,\ 219)}$=25.317, p<.001), 세대와 모음($F_{(1,\ 219)}$=4.948, p<.05)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장년층 남성, 장년층 여성, 청년층 남성은 /ㅗ/, /ㅜ/를 조음할 때 F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청년층 여성은 차이가 없었다. F2는 성별($F_{(1,\ 219)}$=16.805, p<.001), 모음($F_{(1,\ 219)}$=38.327,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대와 모음($F_{(1,\ 219)}$=4.649, p<.05)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청년층 남성과 청년층 여성만이 /ㅗ/, /ㅜ/를 발음할 때 F2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리해 보면, 진도 지역어 화자는 /ㅗ/, /ㅜ/를 발음하는 데 있어 세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장년층은 /ㅗ/, /ㅜ/를 발음할 때 고저 위치와 관련된 F1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청년층 남성은 F1, F2가, 청년층 여성은 F2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ㅗ/, /ㅜ/의 변별적 산출 기제가 고저 위치에서 전후 위치로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ㅗ/, /ㅜ/의 조음 위치 변화의 대상은 '장년층 〉 청년층'의 양상을 보이며, 변화의 속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에게서 나타나는 /ㅗ/, /ㅜ/의 조음 양상은 진도 지역만의 특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저 위치에 의해 분류되던 /ㅗ/, /ㅜ/가 전후 위치와 유관한 F2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은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22] 또한 /ㅗ/, /ㅜ/의 변별적 산출에 F2가 유의

22) 조성문,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음향음성학적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427-441면; Kang, Yoonjung,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23, 2014; 이주희·윤규철·변군혁, 「서울 방언의 단모음 변화 연구: 중세부터 현대까지」, 『언어연구』 제31권 4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16, 979-998면; 강지은·공은정,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단일지점 포먼트와 궤적 양상」,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8권 4호, 한국음성학회, 2016, 39-47면 참조.

미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남, 경상, 제주 지역의 청년층 화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23] 특수 직군인 아나운서의 발화에서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24]

/ㅗ/, /ㅜ/의 세대에 따른 조음 위치적 변화는 동일한 후설 고·중모음인 /ㅡ/, /ㅓ/와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장년층과 청년층의 /ㅡ/는 F1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F2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ㅡ/는 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ㅡ/의 실현 양상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대,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고, F1,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F1은 성별($F_{(1,\ 112)}$=74.273,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변수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F2는 세대($F_{(1,\ 112)}$=100.37, p<.001), 성별($F_{(1,\ 112)}$=56.44, p<.001)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세대와 성별($F_{(1,\ 112)}$=22.43, p<.001)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5]

/ㅡ/의 F2가 세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F2 값이 평균적으로 청년층이 더 높다는 사실은 /ㅡ/의 전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ㅡ/ 모음 전방화는 수도권 20대 화자는 물론,[26] 전남 지역(광주, 장흥)과 경상 지역, 제주 지역의 청년층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27] 이러한 /ㅡ/의 전설화는 독립적 변화가 아닌 후설 모음의 연쇄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28] 이향원 외에서는 청년층에서 /ㅜ/의 F2가 증가한 집단은 /ㅡ/의 F2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수도권, 전남권, 경남권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

23)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46-47면 참조.
24) 하영우·오재혁, 앞의 글, 76-85면 참조.
25) 세대와 성별에 따른 /ㅗ/, /ㅜ/의 실현 양상은 이향원 외, 앞의 글의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다. 이는 피험자의 하위 방언권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본고와 달리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는 광주 지역 피험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적 차이는 전남 지역의 하위 방언권별 비교를 통해서 추후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6)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353-355면; 강지은·공은정, 앞의 글, 45면 참조.
27)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48면 참조.
28) Kang, Yoonjung, Op. cit.

이어 /ㅡ/와 /ㅜ/의 조음 위치 변화를 원순성으로 구분되던 두 모음이 /ㅜ/의 F2 증가로 인해 모음 변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연쇄적 현상으로 풀이하였다.[29] 진도 지역의 청년층에게서 나타나는 /ㅡ/의 전방화 역시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방언권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후설 모음의 연쇄적 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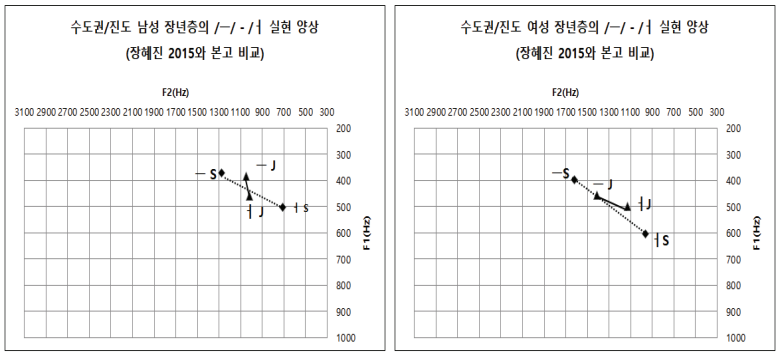
/ㅓ/ 역시 다른 후설 모음과 함께 세대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진도 지역어 화자의 /ㅓ/는 세대에 따라 F1, F2에 큰 차이가 있다. 장년층은 /ㅓ/가 /ㅡ/에 인접하여 실현되는 데 비해, 청년층의 /ㅓ/는 장년층의 /ㅓ/보다 후설 저모음 위치에서 나타난다. 세대에 따른 /ㅓ/의 조음 위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대,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고, F1,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F1은 세대($F_{(1,\ 111)}$=90.489, p<.001), 성별($F_{(1,\ 111)}$=12.94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대와 성별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세대에 따라 남녀 모두 F1에 차이가 있었다. F2 역시 세대($F_{(1,\ 111)}$=54.227, p<.001), 성별($F_{(1,\ 111)}$=36.61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대와 성별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F1과 동일하게 세대에 따라 남녀 모두 F2에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진도 지역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ㅓ/의 F1이 더 높고, F2는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ㅓ/의 후설저모음화 현상'으로 정리된다. 세대에 따른 /ㅡ/와 /ㅓ/의 음가 차이는 후설 고·중모음의 연쇄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에게서 일어나는 /ㅗ/의 고모음화, /ㅜ/의 전방화, /ㅡ/의 전방화는 모음 공간상의 연쇄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모음 공간상의 연쇄적 변화 과정에서 /ㅗ/의 고모음화로 인한 후설 저모음 위치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ㅓ/의 후설 저모음화는 모음 공간의 재조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이동으로 생각된다. 이향원 외에서도 수도권 여성과 전남, 경남, 제주 지역 청년층에게서 /ㅓ/의 F2 감소가 일어나면 /ㅗ/의 F1

29)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49면 참조.

도 함께 감소한다고 하였다.[30] 이는 후설 고·중모음의 연쇄적 변화가 진도 지역 청년층만의 변화가 아닌 대부분의 방언권 청년층에게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음 공간 재조정 현상임을 말해 준다.

다만 진도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ㅓ/의 후설 저모음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표준어 지역에 비해 세대별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진도 지역 청년층은 장년층과 달리 /ㅓ/가 후설 저모음화 되어 세대에 따라 /ㅡ/와 /ㅓ/ 간 거리 차이가 크다. 그러나 세대에 따른 /ㅡ/와 /ㅓ/ 간 거리 차이가 온전히 청년층에게서 나타나는 /ㅓ/의 후설 저모음화 때문만은 아니다. 진도 지역 장년층은 상대적으로 /ㅓ/를 /ㅡ/에 인접하여 조음하는 특징이 있다. 즉, 세대에 따른 /ㅡ/, /ㅓ/의 모음 간 거리 차이는 청년층의 후설 고·중모음의 연쇄적 이동과 진도 장년층의 /ㅡ/, /ㅓ/ 간 조음적 특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수도권 장년층 화자의 /ㅡ/, /ㅓ/ 거리와 진도 지역 장년층 화자의 /ㅡ/, /ㅓ/의 거리를 비교해 보았다.



* 수도권 = S(장혜진 외 2015), 진도 = J

지역	수도권				진도			
성별	남		여		남		여	
포먼트(Hz)	F1	F2	F1	F2	F1	F2	F1	F2
/ㅡ/	372	1278	397	1623	385	1051	457	1413
/ㅓ/	503	710	604	963	460	1021	501	1131

〈그림3〉 수도권과 진도 장년층의 /ㅡ/와 /ㅓ/ 실현 양상

30) 같은 글, 48면 참조.

〈그림3〉은 장혜진 외와 본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장년층과 진도 지역 장년층의 /ㅡ/, /ㅓ/ 실현 양상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31] /ㅡ/, /ㅓ/의 모음 간 거리 차이가 지역에 따라 존재하는지 수치화하여 비교해 보기 위해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적용하였다. 수도권 장년층은 장혜진 외에서 제시한 /ㅡ/, /ㅓ/ 포먼트 평균값을 기준으로 남성은 583, 여성은 692이다. 이와 달리 진도 지역 장년층은 /ㅡ/, /ㅓ/ 간 평균 거리가 남성은 123, 여성은 331로 수도권 화자에 비해 각각 약 4.8배, 2.1배의 거리차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 장년층과 비교하여 진도 지역 장년층은 상대적으로 /ㅡ/, /ㅓ/ 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도권과 전남 지역의 장년층에게서 나타나는 /ㅡ/, /ㅓ/의 실현 양상 차이는 이향원 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2] 이향원 외에 따르면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준으로 전남권 장년층의 /ㅡ/, /ㅓ/ 간 거리는 남녀 각각 157, 172이었다. 이에 비해 수도권 장년층의 /ㅡ/, /ㅓ/ 간 거리는 남녀 각각 292, 354로 전남권 장년층에 비해 약 1.9-2.1배 높았다. 이향원 외의 전남권 장년층이 대체로 본고의 하위 방언권과 동일한 장흥 지역민이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진도를 포함한 전남권 장년층은 /ㅡ/와 /ㅓ/, 특히 /ㅓ/의 조음 위치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ㅓ/ 차이가 청년층의 후설저모음화 현상이 1차적 요인이겠으나, 기본적으로 장년층의 /ㅓ/가 /ㅡ/에 가깝기 때문에 더 두드러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전남 서남부에 위치한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명의 진도 지역어 화자를 대상으로 단모음 음성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음성 자료 분석을 통해 성별과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1)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344-347면 참조.
32)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48면 참조.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의 전남 지역이 9개의 단모음 체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음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는 /ㅣ, E, ㅡ, ㅓ, ㅏ, ㅜ, ㅗ/의 7모음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진도 지역 장년층 중 /ㅚ/, /ㅟ/를 단모음으로 조음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조음하였다. 청년층은 성별과 관계없이 /ㅚ/, /ㅟ/를 완벽하게 이중모음으로 실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도 지역어는 /ㅚ/, /ㅟ/가 '단모음 〉 이중모음'으로의 변화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ㅖ/와 /ㅒ/는 F1, F2 수치를 살펴본 결과 통설대로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모음을 변별적으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도 지역 청년층 화자와 장년층 화자의 단모음 실현을 비교한 결과 조음 위치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도 지역어 장년층은 성별에 관계없이 /ㅗ/, /ㅜ/를 조음할 때 고저 위치와 관련된 F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층 남성은 F1, F2가 청년층 여성은 F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ㅗ/, /ㅜ/의 변별적 산출 기제가 혀의 고저에서 전후로 바뀌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청년층에게서는 /ㅡ/의 전방화, /ㅜ/의 전방화, /ㅗ/의 고모음화, /ㅓ/의 후설 저모음화로 이어지는 후설 고·중모음의 연쇄적인 조음 위치 변화가 관찰됐다. 후설 고·중모음의 연쇄적 조음 위치 변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준어 수렴 현상의 하나이다. 이는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은 세대를 기준으로 체계적 차이는 없으나 음성적 측면에서 개별 단모음의 조음적 위치 차이는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관찰이 중심이었던 전남 지역어 연구와 달리 음성 자료의 직접적 분석을 통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에 대한 실증과 세대에 따른 음가적 차이를 밝힌 점은 향후 전남 방언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강지은·공은정,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단일지점 포먼트와 궤적 양상」,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8권 4호, 한국음성학회, 2016, 39-47면.

기세관,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김경표, 「해남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

_____,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김광헌, 「신안 지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3.

김완진, 「全羅道 方言 音韻論의 硏究 方向 設定을 爲하여」, 『어학』 제2집, 全北大 語學硏究所, 1975, 1-6면.

김 철, 「전남 완도군 신지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9.

남정식, 「全南 內陸 方言의 音韻考: 東部地域과 海岸地域을 比較하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1990.

박양구, 「전남 방언의 모음체계」, 『논문집』 제7집, 漢城大, 1983, 127-141면.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서울: 國語學會, 1998.

손희하·위평량, 「구림 지역어의 변화: 노년층과 장년층의 음운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8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1, 95-115면.

신우봉,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신지영·차재은,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서울: 한국문화사, 2003.

이기갑, 「동부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제7호, 한국언어학회, 1984, 115-133면.

이돈주, 『전남방언』, 서울: 형설출판사, 1978.

_____, 「진도의 방언」, 『호남문화연구』 제10-11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979, 89-133면.

_____, 「전남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제8호, 국어연구소, 1987, 64-79면.

이상신,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이주희·윤규철·변군혁, 「서울 방언의 단모음 변화 연구: 중세부터 현대까지」, 『언어연구』 제31권 4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16, 979-998면.

이진숙, 「진도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_____, 「고흥지역어와 진도지역어의 모음체계 연구 : 'e, ɛ, ü, ö'의 변화를 중심으로」, 『방언학』 제16호, 한국방언학회, 2012, 217-239면.

_____,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담양 지역어의 특징적인 음운현상」, 『국어학』 제69집, 국어학회, 2014, 105-133면.

이진호, 『국어 음운론 강의』, 서울: 삼경문화사, 2005.

이향원·신우봉·신지영,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9권 2호, 한국음성학회, 2017, 39-51면.

장혜진,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1집 2호, 한국음운론학회, 2015, 341-358면.

정채삼, 「全南 康津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조성문,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음향음성학적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427-441면.

조창규, 「'위'와'외'의 발달과 음가에 대하여 : 18·9세기 전남 서부 방언을 중심으로」, 『國語國文學硏究』 제19집, 圓光大 人文科學大學 國語國文學科, 1997, 253-270면.
차재은, 「20세기 초의 한국어 모음 체계」, 『한국어학』 제37권, 한국어학회, 2007, 361-396면.
최형기, 「전남 나주 방언의 몇 특성」, 『언어연구』 제19권 3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04, 535-546면.
하영우·오재혁, 「아나운서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3권 1호, 한국음운론학회, 2017, 55-94면.

Jacewicz, Ewa, RobertA Fox, Joseph Salmons, "Vowel change across three age groups of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Vol.39, 2011.
Kang, Yoonjung,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23, 2014.
Tukey, J.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ss: Addison-Wesly, 1977.

【Abstract】

Aspects of vowels in Jeonnam-Jindo

Ha, Young-Woo*, Shin, Woo-Bo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monophthongs in the Jeonnam-Jindo dialect. For this purpos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and data was gathered from Jindo dialect speakers in their 10s and 5,60s. The data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subjects' generation, gender.

The result of production experiment was that Jindo dialect speakers have same vowel system between generations: 7 vowel system (/i, E, a, ə, ɨ, u, o/). The older generation of Jindo speakers mostly pronounce /ㅚ/ and /ㅟ/ as monophthong irrespective of sex and the young generation of Jindo speakers entirely pronounce /ㅚ/ and /ㅟ/ as monophthong. Also, we found that /ɯ/, /u/ moved toward front and /o/ moved toward high in the vowel space from the Jindo speakers in their older to those in their young. And /ʌ/ showed a shift in the vowel space from the back to the open vowel. The results revealed a chain-like shift in the high and mid back vowels. It is assumable that the degree of standardization appearing in the place of articulation on vowel is quite high in the Jindo dialect.

Previous studies discussed the Jindo vowel system on the basis of the observations made by the researchers. The current study, on the other h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investigated sound changes in vowel production throughout the vowel system and confirmed the articulation place of vowel using phonetic methods.

Keywords: Jeonnam-Jindo dialect, vowel system, generation, high and mid back vowels, place of articulation on vowel.

접수일: 2018.03.30 || 심사일: 2018.04.11 || 게재확정일: 2018.05.04

* Lecturer, School of Humanities & Sciences KAIS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Jeju University.